무안에서 귀어창업 도전해보세요

창업·주택구입 지원대상자 모집
각각 3억·7500만원까지 저리 대출
15일까지 해양수산과 신청 접수

무안 지역에 귀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관계 공무원과 상담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에서 귀어 도전하세요"

무안군이 귀어업인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귀어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2017년 1월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 또는 무안군에 거주한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이다.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무안군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 이상의 이수자격이 필수다. 따라서 사업신청 전 교육 이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귀어 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신용,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사업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박홍양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어촌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해수청,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일제점검

30일까지…39개소 대상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무단 점·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관련 시설 9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0개소, 부잔교 등 계류시설 3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시설 4개소 등 총 39개소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대상 38개소에 대비해 지자체 관리시설 1개소가 추가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내년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조례 제정·답례품 개발도 나서

진도군이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집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돼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계획을 수립해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개발, 전담팀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도권 주민,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진도만의 특색있는 홍보 마케팅과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세제혜택은 10만원 기부시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입주작가와 군민의 만남…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 토크콘서트

8일~22일 3주간 매일 수요일

해남군은 지역 문학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작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백련재 문학의 집은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시설로 문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문학 레지던스 사업과 교육, 행사 등 다채로운 문학 행사가 열리는 특색 있는 공간이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입주 작가와 군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학을 활성화하고 백련재 문학의 집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으며, 문학 콘텐츠 가치 창출을 취지로 진행하는 2022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30분에 땅끝순례문학관 북카페에서 진행된다. 이원화 상주작가의 진행으로 8일 고향갑 극작가(아는 만큼 보인다)·가수 손병휘, 15일 김재용 시조시인(나의 시는 예술이다)·대금연주가 문재식, 22일 손민두 소설가(소설은 고유한 나를 찾기 위한 분투)·시노래가수 나무(박양희)의 토크와 공연이 이어진다.

문학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및 관련 문의는 문화예술과 고산문학팀(061-530-5127)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입주작가와 군민이 교류하며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새로운 해남 100년 출발"…신청사 개청식

코로나 연기…7일 기념행사
구 청사에 조성 군민광장도 개방

해남군이 2019년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한 신청사 개청식을 오는 7일 갖는다.

해남군 신청사는 연면적 1만 8601㎡, 군청사 7층, 군의회 청사 5층 규모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공사기간 군민불편사항을 감안해 개청식을 잠정 연기하고 현판제막식 후 지난해 9월부터 신청사 업무를 시작했다.

개청식 행사는 군민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식전행사로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 풍물놀이 등이 진행되며, 청사 신축 경과를 보고하고 제막행사 등을 갖는 기념식이 개최된다. 식후 행사로 미스트롯 김다현 등이 출연하는 축하행사도 펼쳐진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청사 신축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총 651억여원의 기금을 조성, 기금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면서 신청사를 '빚없는 청사'로 완공했다.

군청사는 1층 모자휴게실과 주민소통공간, 2층은 역사관 및 북카페, 대회의실 등 1층과 2층을 군민소통공간으로 구성하고, 주민자치시대의 열린 청사로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3층은 직원 쉼터와 옥외휴게공간, 4~6층은 직원 업무공간, 7층은 cctv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구내식당으로 구성됐다. 지상 및 지하에 1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돼 있다.

군 의회청사는 1층 주민소통실과 의회로비, 2층은 재무과 사무실, 3~5층은 해남군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 개인의원실 등이 들어섰다.

개청식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해남군민광장도 개방된다. 군은 신청사 건립 후 지난해 11월부터 구 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군민광장 조성사업에 착수, 지난 5월말 사업을 준공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염원의 결실인 신청사 개청은 새로운 해남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해남군 청사신축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께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경관조성용 창포 식재 관광객 호응

영광군은 대표 관광지인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오랜 역사를 가진 법성포단오제행사장에 경관조성용 창포를 식재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창포는 옛날부터 단오날 머리감기에 사용돼 왔는데 뿌리와 잎의 '페놀' 성분이 머리카락을 윤택하게 하고 은은한 향기가 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단오제 행사에서도 창포 머리감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휴경지 및 주요명승지 주변 경관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지에 오색꽃창포 1만본, 창포 3000본, 팜파스그라스 140주를 식재했다. 올해부터 5~7월에는 창포와 꽃창포, 9~11월에는 팜파스그라스가 개화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법성포단오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창포를 식재하게 됐다"며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경관조성지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